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등불이기를

비로자나 부처님의 동체대비同體大悲 봄소식이 생명의 기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산하대지는 따스한 품이 되어 만물만생을 기나긴 겨울잠에서 일깨우고, 드디어 화사한 봄꽃을 활짝 피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바세계의 많은 중생들은 여전히 맑고 향기로운 봄소식에서 벗어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불국정토의 소식을 전하시려는 큰스님들의 선서화禪書畵는 그대로가 서원誓願과 원력願力이 담긴指南指南이기에, 뭇 대중들이 친견하고 받들어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현대사회의 불평등은 이미 그 격차가 상당하고, 더 이상 방치한다면 인류의 미래가 온전하게 보전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온 생명의 평화와 평등의 가치를 걸고 구제중생의 역사를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구촌의 지역적 양극화 현상,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상대적 불평등으로 야기된 빈곤의 악순환은 근현대 인류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벌어진 공업共業의 결과이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유산遺産 중의 하나입니다.

종단의 소임을 맡아 오면서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혜에 미력이나마 보답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심하던 가운데, 우선순위는 바로 한국불교가 지향하는 대승불교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룬 보살도를 세간에 널리 실천함으로써, 한국불교가 대승불교 실천 주체로써 전법傳法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인류를 희망과 행복의 세계로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준엄한 사명을 일구월심日久月深 잊지 않고 모두가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시회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대승보살의 지혜와 자비 정신이 잘 조화를 이루어 학교를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공감하시고 손수 서화를 내려 격려해 주신 종정예하께 깊은 공경을 올리며, 선서화를 통해 무명중생無明衆生을 일깨워 주시는 큰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참대중의 성원에도 감사드리며, 지혜와 자비의 불사가 원만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년 4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재)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 승